



##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무산에 따른 입장

2017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7개의 참석 대상 정당 중 대한애국당을 제외한 6개 정당이 불참함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월 27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KBS 스튜디오에서 2017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지난 8월 30일 결정하고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인 7개 정당에 그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정의당과 새민중정당은 공영방송이 정상화 될 때까지 정당정책토론회를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사유도 명시하지 않은 채 정당정책토론회 불참의사를 문서로 알려 왔습니다.

이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월 25일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 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정책토론회 연기 사유로 볼 수 없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정대로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정의당이 정당정책토론회 불참의사를 밝혔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새민중정당도 정당정책토론회 참석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한편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개최일시·장소, 주제·진행방식 및 사회자 등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결정·선정하고 토론내용은 편집 없이 생방송되므로, 공영방송사는 정당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인 결정 권한도 없으며,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 제2항에 따라 정당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당정책토론회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법정 토론회입니다.

향후 각 정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개최하는 정당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길 요청합니다.